

BILZARD
ENTERTAIN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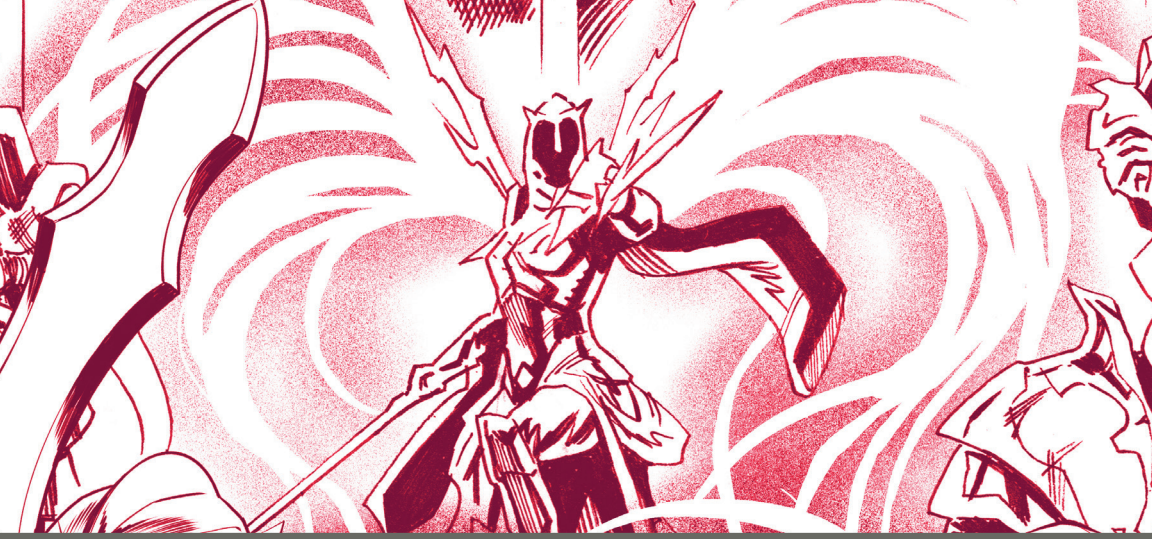
DIABLO

IMMORTAL



베라티엘의 사슬

FRED KENNEDY — ADAM GORHAM



베라티엘의 사슬

DIABLO
IMMORTAL

세계의 왕관에서 디아블로가 천사 베라티엘을 포로로 잡고 있습니다. 디아블로가 성역의 사멸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베라티엘의 힘이 필요하지만, 그러려면 우선 그녀의 정신을 무너뜨리고, 그 힘을 타락시키고,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작가 **FRED KENNEDY** 작화 **ADAM GORHAM**
채색 **LAUREN AFFE** 레이아웃 **COREY PETERSCHMIDT**
식자 **ANDWORLD DESIGN** 표지 **ALEX MALEEV**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스토리 및 프랜차이즈 개발, 선임 디렉터 **VENECIA DURAN**

문학 및 도서, 선임 매니저 **MATTHEW COHAN**

편집 슈퍼바이저 **CHLOE FRABONI**

선임 브랜드 아티스트 **COREY PETERSCHMIDT**

제작 **BRIANNE MESSINA, AMBER PROUE-THIBODEAU,**
TAKAYUKI SHIMBO, LAURA WOODWARD

게임 팀 자문 **NICK CHILANO, DAVID LOMELI,**
RYAN QUINN, EMIL SALIM

세계관 자문 **IAN LANDA-BEAV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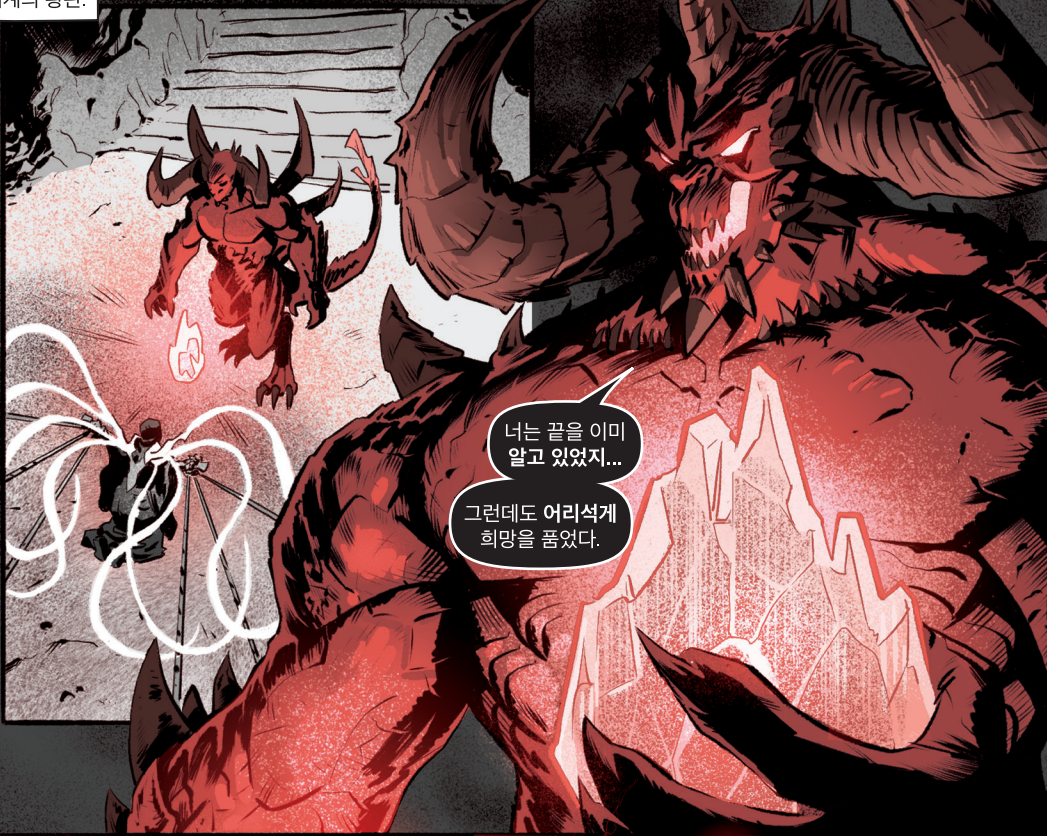
BILZARD
ENTERTAINMENT Blizzard.com

© 2024 Blizzard Entertainment, Inc. Blizzard, Blizzard Entertainment 로고는 미국과 기타 국가에서 Blizzard Entertainment, Inc.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입니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제공

이 만화는 픽션입니다. 만화에 등장하는 이름, 캐릭터, 장소, 사건은 작가 또는 아티스트의 상상의 산물이거나 허구로 사용되었으며, (생사를 막론하고) 실제 인물과 사업체, 사건, 지역과 유사한 점이 있다면 전적으로 우연의 일치입니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에는 작가 또는 제3자의 웹사이트 또는 그 내용물에 대한 통제권과 책임이 없습니다.



너는 끝을 이미 알고 있었지...

그런데도 어리석게 희망을 품었다.



나는 네 두려움을 안다, 베라티엘.

바로 지금도 너는 그 두려움에 휩싸여 있지.



너는 두려움에 질식할 것이고...

지금까지 내가 싸우는 이유였던 모든 것을 배신할 것이다.



넌 날 몰라!

창조 속에서 번영을 누리려는...

모든 것에 공포와 역병을 불러넣는 너는!

치직치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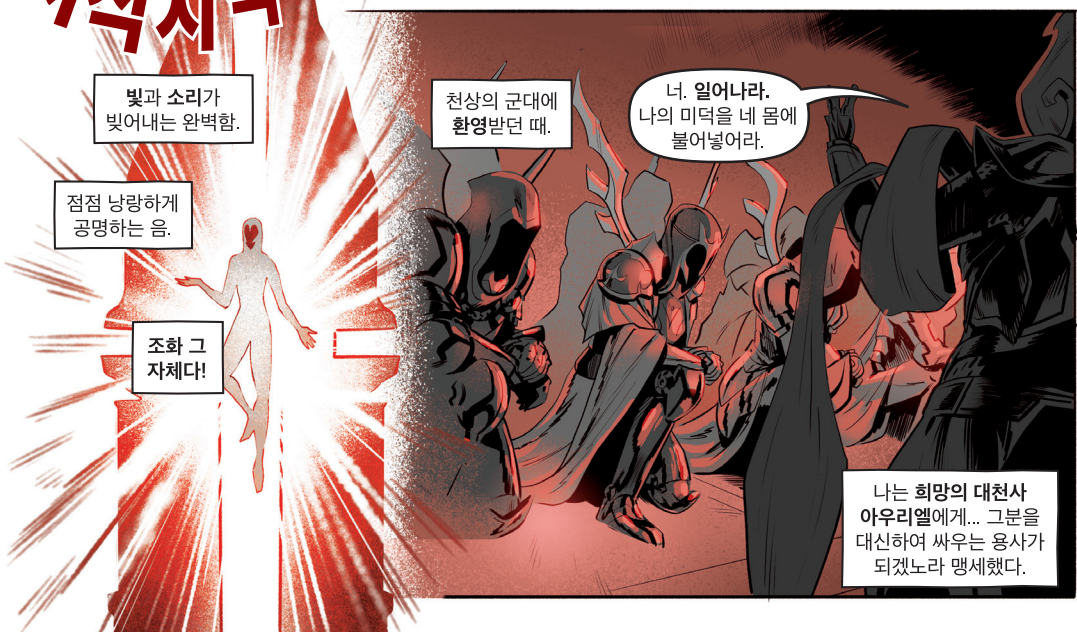


치직치직

네가 천상의
기쁨을 알 리가
없지!

시간에도,
시련에도 속박되지
않은 영광을.

치직치직



빛과 소리가
빛어내는 완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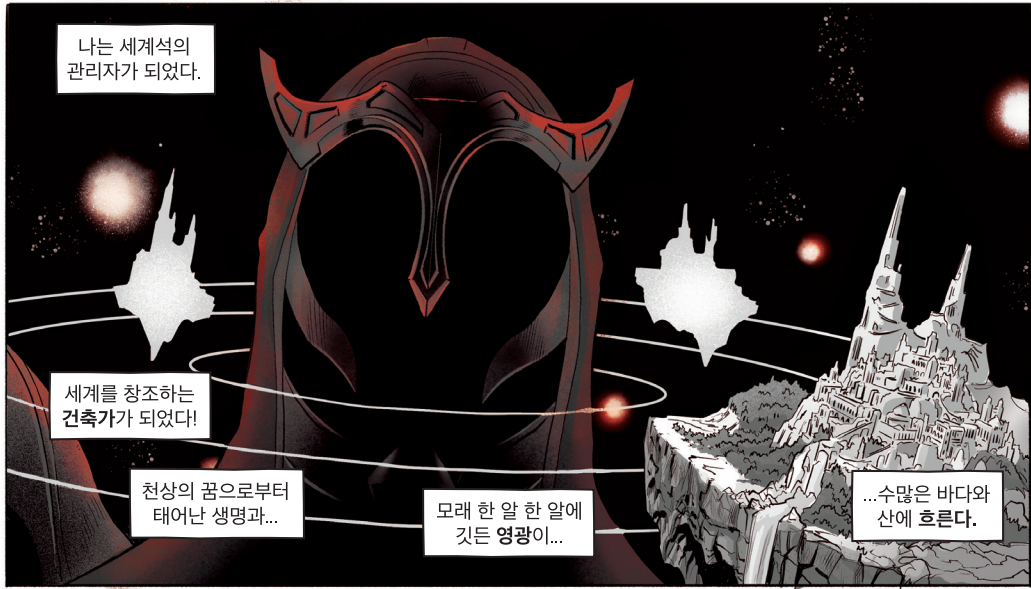
점점 낭랑하게
공명하는 음.

조화 그
자체다!

천상의 군대에
환영받던 때.

너. 일어나라.
나의 미덕을 네 몸에
불어넣어라.

나는 희망의 대천사
아우리엘에게... 그분을
대신하여 싸우는 용사가
되겠노라 맹세했다.



나는 세계적의
관리자가 되었다.

세계를 창조하는
건축가가 되었다!

천상의 꿈으로부터
태어난 생명과...

모래 한 알 한 알에
깃든 영광이...

...수많은 바다와
산에 흐른다.

세계석을 도둑맞았을
때 너는 크게 절망했다.
그리고 두려웠다.

없어졌어!
내 잘못이었나?

세계석이
없다면... 나는
무엇이지?

무슨... 짓을
한 것이지?

이건...
신성모독이다...

희망이 없는 미래를
직시한다는 것은
그러했다.

희망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 악마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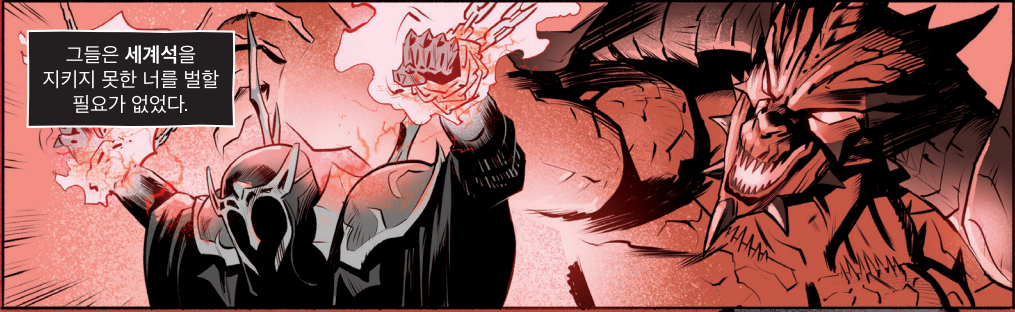
희망의 노래는 우리
가슴속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어!

우리가 뿜는
용맹의 빛에 지옥의
중자들은 눈이 멀고
말 것이다!


놈들은 우리의
칼끝에서 구원의
의미를 알게
되겠지!

너희의 그 잘난 의회는
어리석게도 지옥을
응징하려 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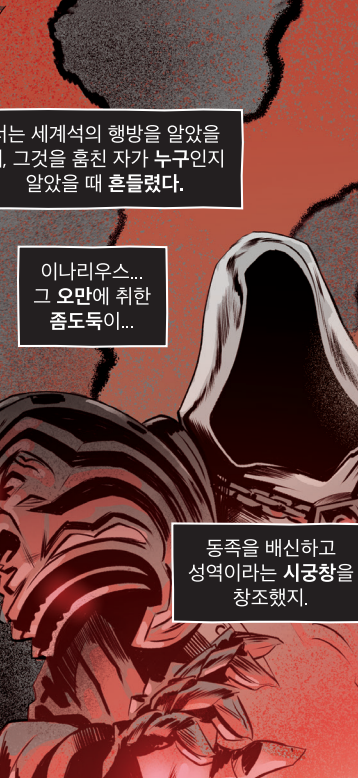
그야말로 자멸을
피한 것이다.




그들은 세계석을
지키지 못한 너를 벌할
필요가 없었다.




내가 스스로를
벌했으니까. 너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과오를 없던 것으로
하려 했다. 네 수치를
숨기고, 두려움을
가리려 했다.




너는 세계석의 행방을 알았을
때, 그것을 훔친 자가 누구인지
알았을 때 흔들렸다.




이나라우스...
그 오만에 취한
좁도독이...




동족을 배신하고
성역이라는 시공창을
창조했지.




그동안 너는 스스로 천상의
전쟁 병기의 톱니바퀴가 되어
돌고 있을 뿐이었다.




너로 인해 천사들이
수도 없이 죽었다.




나는 형제자매들의
길을 지켰어!



나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어!



너는 적에게 칼날과 죽음을
주었고 동료에게는 거짓
약속을 준 것이다, 베라티엘.



너는 혼돈의
꼭두각시였다.

거짓말!

우리는 전투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오는 평화에 대한 약속을 즐기는 것이다. 베라티엘.

하지만 주인님.. 평화는 너무 먼 곳에 있습니다! 희망이 그곳으로 가는 이들을 인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주인인 아우리엘은 너를 구하려 했다.

감히 그분의 이름을 입에 담다니!

내 말은 진실이다. 아우리엘은 군가의 대가를 알고 있었지...

너 역시 알았지만... 너는 오로지 복수만을 갈망했다.

꿈을 버리고 검을 택한 것이다.

너는 아우리엘의 군대를 징집했다.

희망에게 죽음의 가치를 들켰지.

너는 영벌의 영역에서 검과 피로써 길을 뚫을 심산이었다.


내가... 아니... 우리-우리가 지옥에서 새로운 권력이 득세한다는 정보를 들었기 때문이야.



스카른...

그를 없애야만
했어.


하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
아닌가?



그들은 위험을
알고 있었어... 우리
모두 알았지...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다.

너 때문에 희망을
품었을 뿐.



너는 동지들을 스카른의
홀수기에 바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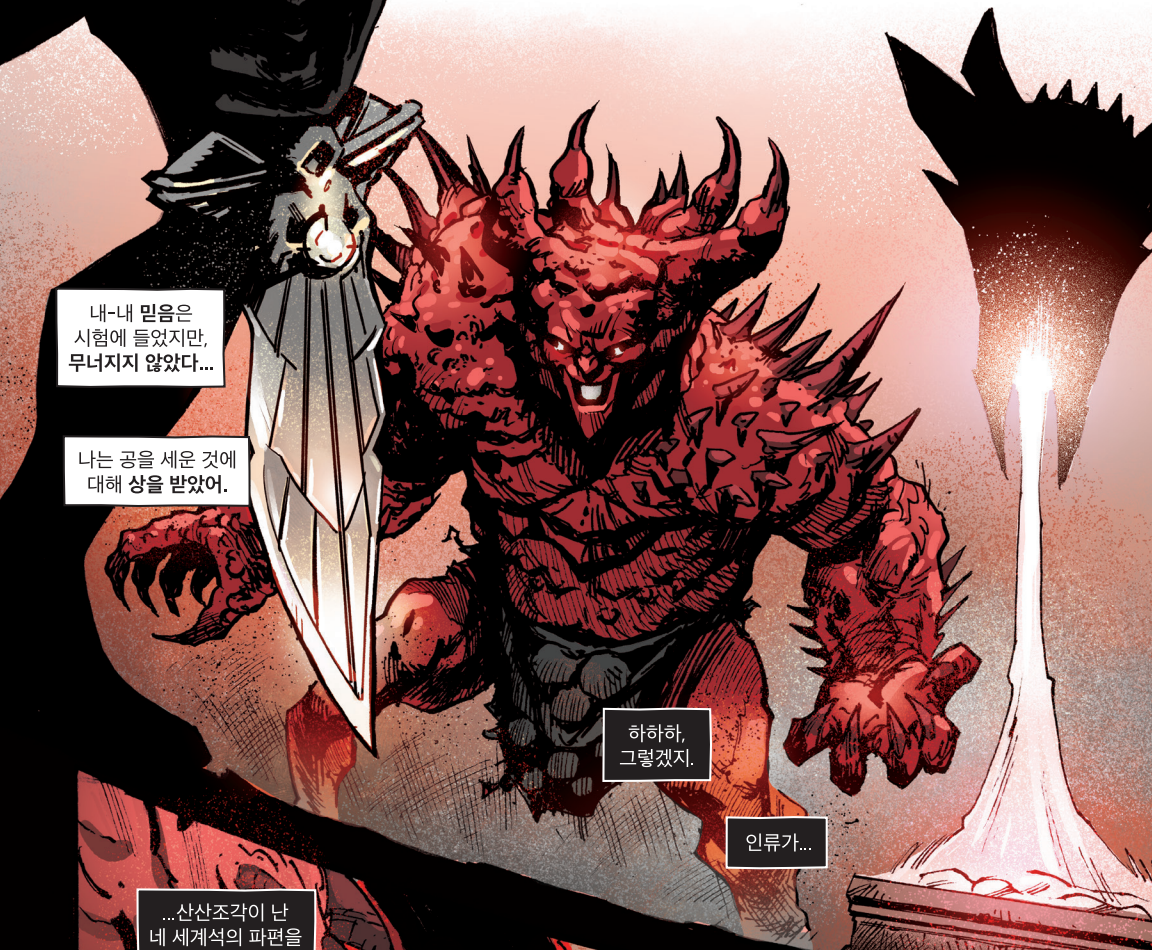
...그에게 네 전우들을 말살할
군대를 만들어 주었지.



그 검은 구덩이 속, 희망은
어디 있었지, 베라티엘?

네가 움츠리고 있는 동안,
그들의 노래는 하나씩
하나씩 꺼져 갔다...

비명이 교향곡을
이루었지.




내-내 믿음은
시험에 들었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나는 공을 세운 것에
대해 상을 받았어.


하하하,
그렇겠지.

인류가...



...산산조각이 난
네 세계석의 파편을
찾아서...

너를 구했지...



하지만 그 후 금방
너를 버렸다.



도망쳐라! 조각을 가지고 달아나!

그것은... 나의 선택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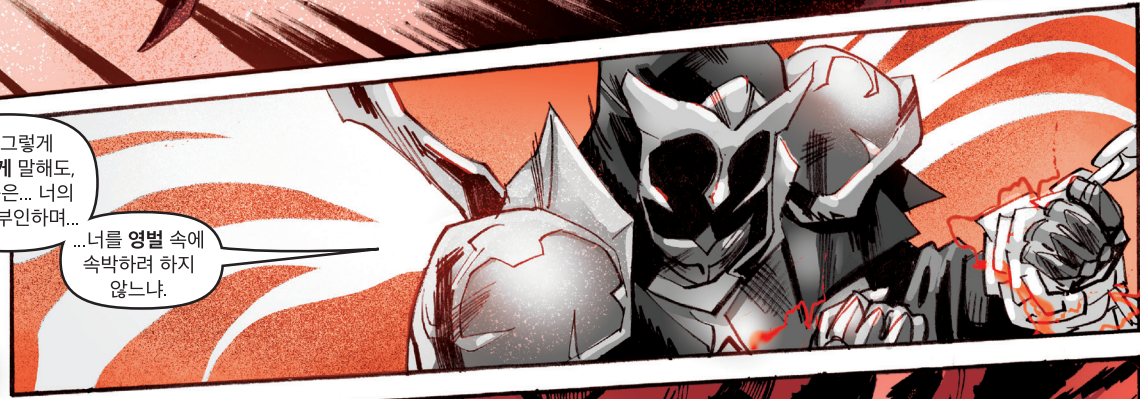
하지만 너는 버려졌다, 베라티엘.

아무도 너를 구하러 오지 않아.

네가 그토록 숭상하는 앙기리스 의회가 네 과오를 이유로 불타는 지옥에 너를 넘긴 것이다.

너... 그렇게 오만하게 말해도, 네 동족은... 너의 귀환을 부인하며...


...너를 영벌 속에 속박하려 하지 않느냐.



네가 이제 알았듯이, 그들 역시 알았다.



두려움은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 보라. 다시
한 번 세계석에게
노래를 할 수
있다면...

...네 잘못을
모두 바로잡을
수 있다면...

그리하겠느냐?